

일반기업체 불자회 활동 침체

정체성·자기발전 모색해야

구태의연... 직장인의 변화 요구 수용 못해

관심 유발 소모임·'법회 다양화' 절실

경남 마산에 위치한 한일합성 법우회. 83년 8월 창립, 한때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한일법우회는 19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원이 5분의 1 수준인 40여명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현직 회원은 절반 수준인 20여명에 불과하다. 회사가 직원을 대폭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법우회원도 크게 줄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창원특수강(옛 삼미특수강) 불자회와 위아중공업(옛 기아기공) 불자회, 창원원의 효성중공업 불자회는 2~3년

사이 활동을 중단했다. LG전자 창원공장 불자회도 IMF 이후 회원 감소와 참여율 저조로 활동을 멈췄다. 92년 창립한 한주(옛 울산석유화학지원) 불자회는 회원이 25% 가량 감소,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 한국카프로라담 불심회도 정기법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활동력이 약화됐다. 최근 공무원불자회가 창립 '봄'을 이룰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데 반해, 직장기능불교의 태동을 이끌었던 일반 기업체 불자회는 회원감소, 참여율 저조 등으로 정기법회조차 열기 어려운 실정이

다.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석유화학, IN스틸 불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체 불자회들은 명맥을 이어가기에 급급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체 불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바쁘고 고된 업무로 사활을 찾지 못하는 기업체불자들이 직장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중공업 법우회 정경도 부회장은 "성심껏 직장단체를 이끌어주는 지도법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교당이 지역별로 마련된 인데 반해, 직장기능불교의 태동을 이끌었던 일반 기업체 불자회는 회원감소, 참여율 저조 등으로 정기법회조차 열기 어려운 실정이

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일합성 한일법우회 최중식 회장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 불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불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진데 반해 직장단체들은 구태의연한 활동을 지속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소모임 운영, 법회 형식의 다양화 등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서 직장내 종교활동을 유익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동일지역, 직종간 연대, 연합활동과 회사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직장단체간 교류는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직업의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 등은 회원들의 관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용규 신도과장은 "사찰과 종단에서는 직장불자들의 신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직장불자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금강회, 창립 20주년 법회 고령화 등 당면문제 토론

한국조계종사 경산조계장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4일 오후 4시20분 회사내 금강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중약스님(대구 보리사) 초청법회를 연다. 금강회는 이날 법회에서 회원 감소와 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82년 10월 창립된 금강회는 정초기도, 율놀이법회, 차량안전기원법회 등 법회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성도절 철야정진법회, '봄'에서 열반까지'의 특별기도기간, 우란분절 칠일기도 등 신행과 기도를 병행해오고 있다. 금강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여조계장 금강회가 활동을 중단, 경산조계장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윤종우 회장은 "성년을 맞이한 만큼 금강회가 보다 성숙한 신행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불자회는요

대구광역시청 유마회

유마회는 대구광역시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공간실본부 등 신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불자들의 모임입니다. 20여명의 뜻있는 선배들이 모여 1988년 8월 결성된 이래 14년동안 꾸준한 포교 실행활동을 펼쳐온 결과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직장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불자로서, 또 유마회원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으며,

이처럼 발로 뛰면서 증흥에 나선 결과 유마회는 500여명의 회원 확보, 매월 정기법회와 년 2차례의 성지순례, 대구근교 사찰에서의 야외법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수련회와 수계법회를 열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차담법회, 무차선법회 등을 마련해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담시간은 회원들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화기에애한 지리가 되기도 하죠.

물론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유마회는 무엇보다 불제자로서



◇대구시청 유마회원들이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입정에 들었다.

500여명 회원, 대구지역 대표신행회 자부 이타행 중시·생활속 불법 실현 서원

아닙니다. 96~98년에는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모임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들의 응징력은 커지는 것 같아요. 신심이 깊은 회원들이 유마회 재건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강재현 현 회장(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과 박영홍 총무(총무과) 등 새로 구성된 임원을 중심으로 유마회 증흥에 나섰습니다. 신규회원 모집을 위해 부서마다 홍보문을 게시하고, 청내 전산망에 홍보글을 수시로 업데이트 했죠. 또 인사기록카드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힌 직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만나 유마회를 알리려났습니다. 대구시 산하 8개 구 군청 불자회 창립도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열성이었어요.

행을 중요시합니다. 회원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속의 불교를 실현하는 원을 세웠지요. 모범적인 가장, 따뜻한 어머니, 자애로운 상사, 적극적인 직원이 되기 위해 회원들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들이 불우이웃 후원과 방편,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지요. 재정적인 문제와 큰스님을 모시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불자들에게 사찰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마회 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과 큰 스승님 법문 들을 수 있는 불자를 한사람 한사람 만나 유마회를 알리려났습니다. 대구시 산하 8개 구 군청 불자회 창립도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열성이었어요.

홍하연미(청소과)

전북·울산·강원·인천지역 등

지회창립 위한 현황조사

전국경찰불교회

불교활동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경찰불교회는 3일 대전역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전국 지부 총무단회의에서 중앙임원 및 서울 경기·전남·경북·경남지방청 불

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환)는 전국 울산 인천 강원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회 창립을 위한 경향

우리 모임에선

금융인 불자들 합동법회 봉행

금융인 불자들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이탁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법륜사 주지스님 법문 등으로 진행되는 법회에 이어 북한산 등반을 통해 금융인 불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한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서울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거래소 불자회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직원신도회 성지순례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중환)는 16~17일 강릉 등명당가사, 오대산 상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등명당가사에서 새벽예불과 법회를,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참배한다. 국회직원신도회는 성지순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과 친목을 다질 계획이다.

전력인불자련 대의원 수련회

전력인불자련연합회는 17일 영광 불갑사에서 대의원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수련대회에서는 연합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 16일 입재하는 대의원들을 위해 사찰체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회 총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장비, 경찰불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까지 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방법은 지방경찰청 불교회에서 관할 경찰서의 경찰불교회 설립 유무, 정기법회 유무,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열리는 전국인원수련회에서 조직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을 통한 불교기본교육 강화와 중부·영남·호남 권역별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정자립을 위해 지부와 지회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서대문구청 불자회 재창립

서대문구청 불자회(회장 김승욱)는 10월 30일 흥동 백련사에서 재창립법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서대문구사암연합회장 자린 백련사 회주 윤경 스님,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서대문구청 불자들은 매일 한차례 정기법회와 봄 가을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단체장 동정



불교신약인련 총재 취임식
김정길 대한불교전국신약인련 합회 총재는 10월 27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창립5주년 기념법회에서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



감시원 불자회 회장에
장광명 감사원 제6국장은 10월 25일 열린 감시원불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초발심자경은 강좌 개최
박우락 성복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초발심자경은 강좌를 개최한다.



각연사·미애불 참배
강신철 경향신문 불자회장은 9일 괴산 각연사와 원풍리 미애2 불병좌상을 찾아 순례법회를 열었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음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명상 최면 지도사」 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식(자연영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영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전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명상최면-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명상최면-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전도하는 기법. 명상 당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명상전생연구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집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집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배임) (소송) (빙의) (죽생) 전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는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게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靈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 가능해진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같은 명상 상태에 빠져나와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빠르게 인도(제령)하고 정리(전도)하는 기법「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의처: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